

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	<h1>보도해명</h1>	2016. 2. 22 (월)	
		작 성 문 의	국무조정실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 기획조정과 과장 조인철 / 사무관 김혜경 (Tel. 044-200-2551 / 2552)
<p>즉시 사용</p>			

유보통합 '유아무아' 제하 기사 관련

(경향신문, '16.2.23자 가판, 1면 및 6면)

□ 주요 보도내용

- 유보통합이 완료 9개월을 앞둔 현재까지 거의 추진되지 않고 있음
 - 목표과제 8개 중 완료된 것은 두가지(결제카드 통합, 정보공시 통합) 뿐임
 - 교사 자격 통합은 아예 논의조차 시작되지 못하고 있음
 - 관리부처 통합방안 기본 윤곽조차 나오지 않은 상태임

□ 보도 해명

유보통합은 「유보통합 추진방안*」 ('13.12월)에 따라 '14년부터 '16년에 걸쳐 국무총리실 유보통합추진단과 관계부처 합동으로 필요한 과제들을 계획대로 추진 중으로, 위 보도는 사실과 다름

- * (1단계, '14년) 결제카드, 평가체계, 정보공시 통합 등 품질개선 기반마련
 (2단계, '15년) 시설기준 정비, 가격규제 제도개선 등 규제·운영환경 정비
 (3단계, '16년) 교사, 관리부처 등 정비·통합

① '평가체계 일원화의 경우 지난해 시범운영 한 것 외에 전혀 진척이 없다'는 보도 관련

⇒ 평가체계 통합은 '14.12월 통합방안을 마련하고 '15.12월까지 시범 평가를 실시하여 이를 토대로 현재 평가항목 등을 최종 조정 중에 있음

② '시설기준 정비 및 통합도 유관부처와의 실무협의 단계에 머물고 있다. 기준도 정해지지 않았다'는 보도 관련

⇒ 시설기준은 부처협의,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거친 후 '15.9월 유보통합추진위원회에서 통합방안을 확정하였으며, 현재 부처별로 법령개정안을 준비 중임

③ '교사 자격과 양성체계를 통합하는 작업은 아예 논의조차 시작되지 못하고 있다. 처우격차를 해소하는 문제역시 소요 예산조차 추산되지 않았다'는 보도 관련

⇒ 교사 자격체계 통합방안 등은 '16년도 추진 과제로서 현재 정책 연구 단계에 있음

- 당초 계획대로 금년내 '16년에 관리부처 통합방안과 함께 방안을 확정·발표할 계획임

④ '핵심과제인 관리부처 통합방안도 기본 윤곽조차 나오지 않은 상태다'는 보도 관련

⇒ 관리부처 통합은 조직·재원·서비스 전달체계 등 매우 다양한 사안을 고려해야 하는 과제로, 현재 정책연구 마무리 단계에 있음

- 당초 계획대로 금년 내 통합방안을 마련한 뒤 입법 등 관련 후속조치를 추진할 예정임